



즉시 배포용: 2018 년 4 월 2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나이아가라 카운티 타운 지자체를 위해 온타리오 호수(LAKE ONTARIO) 홍수 피해 경감 기금 615,000 달러 이상 지원 발표

향후 홍수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강화하고 홍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뉴페인 타운 및 바커 빌리지에 보조금 지급

복구 활동에 투입한 주정부 지원금 5,500 만 달러의 일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작년 홍수 발생 후 회복력 복원 노력을 지원하고 향후 폭풍 피해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나이아가라 카운티에 위치한 뉴페인 타운 및 바커 타운에 온타리오 호수 홍수 피해 경감 기금 615,083 달러를 지원하였음을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주정부는 주택 소유자, 중소기업, 지역사회 인프라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복구 활동에 지원금 5,500 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카운티는 작년 온타리오 호수 연안에서 유례없이 심각한 홍수를 겪었으며, 뉴욕주는 여전히 피해에서 회복 중인 가족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폭풍우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께 실질적인 구제책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해당 기금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고 현명한 뉴페인 타운과 바커 빌리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뉴페인 타운은 온타리오 호수 홍수 피해 경감 기금 65,693 달러를 지원받아 온타리오 호수 홍수 발생으로 지출한 긴급 비용을 지자체에 상환합니다. 해당 긴급 비용에는 넘치는 빗물 배수관의 물을 펌프를 사용해 퍼내는 작업, 빗물 배수관 및 배수구의 청소 작업, 뉴페인 타운 올코트 항구(Olcott Harbor) 인근 상업 및 주거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된 모래 주머니 구매 자금이 포함되었습니다. 응급 구조 요원의 초과 근무 수당 또한 해당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 약 9,450 명이 거주하고 있는 뉴페인 타운은, 나이아가라 강과 로체스터 시 사이의 온타리오 호수 남쪽 연안을 따라 위치한 유일한 심해항인 올코트 항구(Olcott Harbor)의 향후 홍수 피해 완화와 관련된 타당성 조사 및 건설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에

500,000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올코트 항구(Olcott Harbor)와 뉴페인 타운은 모두 2017년 여름 온타리오 호수에서 발생한 홍수로 상당한 홍수, 침식, 연안 및 구조적 피해를 겪었습니다.

바커 빌리지는 2017년 온타리오 호수 홍수 발생으로 인해 심각한 침식과 피해를 겪은 바이센테니얼 공원(Bi-Centennial Park)에 190 피트 높이 방호벽을 건설할 수 있도록 홍수 피해 경감 및 복구 기금 49,390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온타리오 호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공원의 연안선이 크게 침식되어 18-24 인치 사이의 연안선이 손실되었습니다. 연안선이 침식되어 빌리지의 빗물 배수관과 나무 뿌리가 노출되었습니다. 빌리지에 자금을 지원하여 연안선을 보수하고 이를 따라 유사한 홍수 피해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방문하여 심각한 피해 현장을 직접 보고 수많은 주민, 사업주 및 주택 소유주와 만나면서, 온타리오 호에서 발생한 홍수가 나이아가라 카운티 주민들에게 미친 심각한 영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매우 힘든 시기를 겪어 왔으며, 우리는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최근 자금 지원으로 홍수 피해 회복력을 갖추고 미래를 위해 중요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헌신할 것입니다.”

주택, 기업, 지역 인프라 등에 피해를 입힌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 로렌스 수로(St. Lawrence Seaway)에서 발생한 홍수에 대처하기 위해, Cuomo 주지사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모래 주머니 수백만 개와 수천 피트 규모의 임시 댐 지원 등을 포함하여 수위를 모니터링하고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카운티 파트너 및 현지 파트너들과 공조했습니다.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 중소기업 및 지자체 등을 원조하기 위한 최초의 4,500만 달러 지원금 공약은 이전의 구호 활동을 강화하고 복구 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주정부 및 지자체 시설 프로그램(State and Municipal Facilities Program)의 500만 달러 지원금 두 번으로 보완되었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으로 뉴페인 및 바커와 같은 온타리오 호 지역사회에 수단과 자원을 제공하여, 작년 홍수 피해를 복구하고 향후 발생할 홍수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 뉴페인과 바커에 대한 약속을 지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 타운의 미래에 신뢰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Timothy Horanburg 뉴페인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페인 주민을 대표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홍수 피해 복구 작업을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향후 심각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이아가라 카운티 의회(Niagara County Legislature)의 Wm. Keith McNall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비상 사태 기간 동안 온타리오 호수 연안 지역사회가 지출한 긴급 비용의 상환은 온타리오 호수 홍수로 인한 지역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주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올해 더 심각한 홍수 발생에 대비하고 있기에, 중요한 기금을 확보해 주신 주지사님과 주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Aaron Nellist 바커 빌리지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10 년에 건설된 바이센테니얼 공원(Bi-Centennial Park)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즐기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연안선 침식으로 주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 펜스를 설치하여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 바커 빌리지는 향후 수년간 공원과 이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변함없이 안정적인 연안선을 만드는 데 사용될 기금을 지원해 주신 주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YS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지원이 없었다면 바커 빌리지의 바이센테니얼 공원(Bi-Centennial Park)은 영구적으로 폐쇄되었을 것입니다. 바커 빌리지는 4 월 초 복구 작업을 시작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